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1.23)

1. 북한 선교를 위하여/ 최근 식량 부족과 겨울 추위에 고통 받는 OO 지역 북한 주민에게 식량 공급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자 껍질까지 먹겠다고 모으고 나선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집 식구들을 당장 굶겨 죽일 것 같은데 겨울까지 닥쳤으니 매일 밤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든 배 안에 들어가면 최소 굶어 죽지는 않으니 감자 껍질, 무시래기 등 먹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최근 양강도에서 한 가족이 오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던 옷 가지까지 모조리 팔아 연명해 왔으나 더는 살 방도가 없어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자 북한 안전부는 이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인민반에 함구령을 내리고 경비와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겨울 추위까지 닥쳐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10 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시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삶의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였다 그토록 끔찍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 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건져 내시리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당한 북한의 성도와 주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여, 굶주림에 시달려 온 북한 주민이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른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아뢰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민이 이런

지경에 빠져 신음하고 있음에도 북한 수뇌부와 추종자들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 무력 증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들의 악행과 도모가 더 이상 서지 못하게 주의 강한 손으로 파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참혹한 굶주림의 늪에서 헤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저들에게 들려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2. 중국 소수민족을 위한 기도/ 최근 15 명의 중국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수민족 사역자가 보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역하는 B 지역은 15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2-3 개월에 한 번씩 모여 3~4 일간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하루 한 시간의 기도 운동을 시작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매주 하루 저녁에 성경공부를 진행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B 지역 소수민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버리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변화되도록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수민족 사역자가 보낸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 장 1-2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호소하노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바른 예배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무엇이 하나님이 뜻인지 곧 그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중국 소수민족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전히 감시와 통제가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또 이들과 연합해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마다 견고한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거뜬히 뛰어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수민족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수민족 성도들과 교회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3.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공포정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에 공개처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원산시에서 의사 A 씨가 중국산 원료로 직접 제조한 페니실린 등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나 이웃과 동료 앞에서 공개처형됐습니다. 또한 작년 7 월에는 함경북도 호위국 소속 중대장 B 씨가 개인 주택 건설에 병력을 동원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부대원들 앞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북한은 공개처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당국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공포정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전에 용서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 흘린 죄를 용서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요엘 3 장 2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에 말씀하신 주님, 북한의 김정은이 경제난 등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을 다잡기 위해 공개재판이나 공개처형을 자주 자행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북한 주민을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일삼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죄악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이제 무고한 자들의 피로 황폐해진 그 땅에 하루 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모든 영혼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북한 당국이 추운 겨울에 백두산 답사를 북한 주민에게 강요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멈추게 하소서!

북한이 영하 20 도의 혹한 속 백두산 답사 운동을 부각하며 사상 무장을 독려했습니다. 지난 12 월은 그 전달 11 월의 3 배에 달하는 간부, 근로자,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답사했습니다. 2019 년 김정은의 이른바 ‘백두산 군마 등장’ 이후 북한 당국은 각계각층에 ‘백두산 대학’을 나올 것을 권유했고, 특별히 겨울에 혁명전적지를 답사해 김일성의 항일투쟁 정신을 체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확실하니 그가 우리에게 소나기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림하시리라” 호세아 6 장

3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에서 강청하는 말씀처럼 북한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그 땅에서 경배받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죄악이 영영이 끝나고 북한의 모든 거민이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